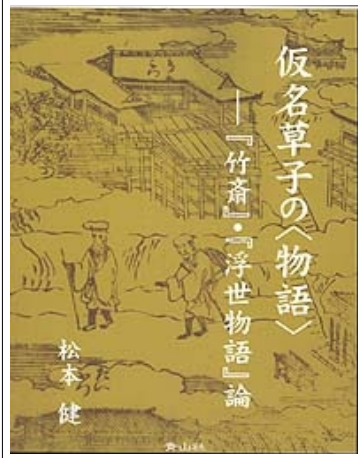


[서평 2(한국어)]

마쓰모토 겐 저 『가나조시(仮名草子)의 〈모노가타리(物語)〉』

〈책 소개〉

근세문학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가나조시의 대표작 『지쿠사이(竹齋)』와 『우키요모노가타리(浮世物語)』에 대한 신역사주의적 고찰. 해학적 이야기 속에 정치·학문·사상에 대한 새로운 구조의 구축이 당대의 예지(叡智)로 그려져 있다. 그것은 도래한지 얼마되지 않은 인쇄기술을 이용한 유식자들의 의식표명이며, 이와 같은 허구의 이야기가 작성되어 수수(授受)되었고, 그것이 유통된 점이 일본문학사에서 <모노가타리>라는 존재의 의미와 인식에 변화를 초래했다는 점을 논하였다.



게초(慶長)(1596~)부터 덴나(天和)2년(1682), 『호색일대남(好色一代男)』이 간행될 때까지 세상에 나온 산문 문예가 가나조시(仮名草子)이다. 공통점은 주로 히라가나로 쓰여졌다는 표기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개별 작품에 따라 가나조시의 범주인지 아닌지 여부의 판정이 전문가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렇듯 어렵고 귀찮은 문제를 포함하면서도 『금오신화(金鰲新話)』를 비롯해 한국문학이 일본문학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가나조시이다.

가나조시 중에서 『지쿠사이(竹齋)』와 『우키요모노가타리(浮世物語)』를 선택하여 예리한 고찰을 가한 본서는 박사논문의 수정판이다. 『지쿠사이』는, 야지(弥次)와 기타(喜多) 일행 두 사람이 실패를 거듭하는 『도추히자구리계(道中膝栗毛)』(1802)에 앞선 작품으로, 황당무계한 의료행위(빨아내는 고약과 자석을 이용한 출산 등)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는 매독에 ‘좋은 음식(宜)’로서, 새의 된장절임, 올빼미 꼬치구이를 예로 드는데 골계적인 치료법의 하나로 간과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저자에 의하면 식재료로서는 당시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매독의 ‘의(宜)’가 정통 의학서에 등재된 것은, 마쓰다 쇼하쿠(松田松珀) 『증보 일용식성(日用食性)』이 처음으로, 다시마였다. 1656년 간행. 『지쿠사이』가 상재(上梓)된 삼십여년 뒤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황에 ‘좋은 음식’의 열거에서 보이는 골계성이란 무엇인가. 저자는

추적의 끈을 늦추지 않는다.

또한 『우키요 모노가타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작품으로 알려진 것은, 오직 권두의 ‘우키요(浮世)라는 것’ 부분에서의 ‘우키요’ 해석이다. <근심스런 세상>에서 <속세>로의 변화를 중세에서 근세로의 변화에 중첩시켜 논하는 것이 문학사의 통례였다. 그러나 표기는 ‘우키(うき)’, ‘부(浮)’로 ‘우키(憂)’는 없다고 지적하고 적확하게 어의를 확정하였다.

이상은 먹(墨)을 아끼기를 돈과 같이 하여 고른 두 사례에 불과하지만, 어느 쪽도 당대인의 입장에서 해독한 성과이다. 이와 같은 저자의 방법은 나카무라 유키히코(中村幸彦) 박사가 제창한 소위 나카무리학 그 자체로, 학문의 정도(正道)를 걷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압권은 제5장 <‘모노가타리’의 변화와 가나조시>이다. 모노가타리의 고찰은 이것만으로도 ‘하나시(咄)’를 나타내고 있어, 산문문예 전반에 대해 생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필독의 문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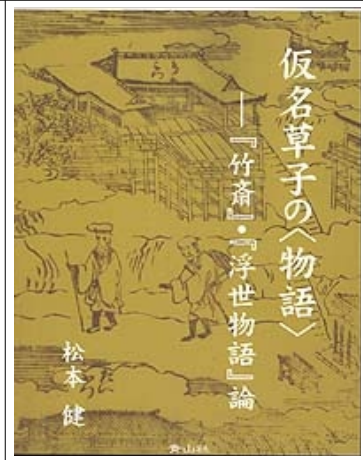
노부히로 신지(延広真治), 동경대학(東京大學) 명예교수

[書評 2(日本語)]

松本健著『仮名草子の〈物語〉』

〈著書紹介〉

近世文学の幕開けを飾る仮名草子の代表作、『竹齋』と『浮世物語』をめぐる新歴史主義的考察。笑いの物語の中に、政治・学問・思想の新たなる枠組みの構築が当代の叡智として映し出される。それは、到来したばかりの印刷技術を利用した有識人たちの意識表明であり、このような虚構の物語が作成・授受されたこと、そして流通したことが、日本文学史における〈物語〉という存在の意味と認識に変化をもたらしていたことを論じる。



慶長頃(一五九六～)から天和二年(一六八二)、『好色一代男』が刊行されるまでに、世に出た散文文芸群が仮名草子。共通点は主として平仮名で書かれているという、表記に関わるため個々の作品に即して仮名草子の埒内に置くか否かの判定が、専門家によって必ずしも一致しない。かように厄介至極な問題を含みながらも、『金鰲新話』はじめ朝鮮文学の日本文学に及ぼした影響を、考察する上で最も重要なのが仮名草子である。

その仮名草子の中から『竹齋』『浮世物語』を選んで、犀利な考察を加えたのが本書で、学位請求論文の修訂版という。『竹齋』は、弥次喜多の二人連れが失敗を繰り返す『道中膝栗毛』(享和二年刊、一八〇二)の先蹤作で、荒唐無稽な医療行為(吸い出し膏薬と磁石を用いて出産させる等)で知られる。その中に瘡気(梅毒)に良い食物、宜(ぎ)として、烏の味噌漬、梟の焼き鳥などを挙げるが、例の滑稽療法の一として見過ごされ勝ちであった。ところが著者に拠ると、食材としては当時実際に用いられている。一方、楊梅瘡(梅毒)の宜が正統な医書に登載されたのは、福田松珀『増補日用食性』が初めてで昆布、明暦二年(一六五六)刊。『竹齋』上梓の三十数年後という。では、このような状況における宜の列挙から見えて来る滑稽生とは何か。著者は追及の手を決して緩めない。

また、『浮世物語』が、逸すべからざる作品として著聞するのは、専ら巻頭の「浮世といふ事」における浮世の解釈で、〈憂世〉から〈浮世〉への変化を、中世から近世への移り変わりに重ね合せて論ずるのが、文学史の通例であった。ところが表記は〈うき〉・〈浮〉で〈憂〉は無いと指摘し、適確に語義を定める。

右は、墨を惜しむこと金の如くして選んだ二例に過ぎないが、いずれも当代の人に身を成して読み解いた成果である。このような著者の方法は中村幸彦博士提唱の、いわゆる中村学そのもので、学問の正道を歩まれる何よりの証左と言い得よう。そして圧巻は第五章、「〈物語〉の変化と仮名草子」。〈物語〉の考察は自ら〈咄〉を浮かび上らせ、散文文芸全般に思いを潜める者にとって、必読の文献となっている。

延広真治(東京大学名誉教授)